



한중 건국 시조신화 비교 연구

상고시대 신화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the Founding myths between Korea and China : Focusing on the Ancient myth

저자
(Authors) 박기용
Park Gi-yong

출처
(Source) [우리말글 43](#), 2008.8, 97-134(38 pages)
[URIMALGEUL :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43](#), 2008.8, 97-134(38 pages)

발행처
(Publisher) [우리말글학회](#)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036452>

APA Style 박기용 (2008). 한중 건국 시조신화 비교 연구. 우리말글, 43, 97-13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26 10:1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한·중 건국 시조신화 비교 연구

- 상고시대 신화를 중심으로 -

박 기 용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Abstract

Park, Gi-yong, 2008, *A Comparative Study of the Founding myths between Korea and China : Focusing on the Ancient myth, URIMALGEUL: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43, pp.97~134.*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founding myths between Korea and China. Thirteen founding myths from two countries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The feature of the founding myths was examined and then common points and differences of two countries' founding myths were studied.

The result is as following. There are two common points between Korea and China founding myths. First, it is diversity. The way the characters appear and come into the world is various. Second, it is a growth process. The way the characters grow up has the same pattern. After the character in the myths is born in a marvelous way, he is abandoned, protected by animals and then comes back to become a great man and make a succeed through many struggles.

There are three different things in the myths. First, while the characters in Korean myth usually come down from heaven, or come up from earth, or they are recognized by sunlight, in Chinese myths they appear by having holy relations with God symbolized such as lightening, footprints, a dragon, rainbows. Second, in Korea the motif of the myths consists of the god of heaven! and the goddess of earth having a holy marriage, but in China there is an

ordinary marriage motif. This means the maternal side had a different statue in two countries. Third, while there are various motives which are related to death because of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hermit worship, shamanism in Korea, Chinese myths show more Confucian influence than Taoism. This is due to the cultural and ideologic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Korean founding myths include similar motives repeatedly, which means that the myth transmitter wanted to retain its original form even in its diversity. On the other hand, Chinese founding myths are various but lack motives, since the myth transmitter sought to unify its original form into Confucianism with diversity.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eywords : Comparative Study, Chinese founding myths, character, Korean founding myths, motif

주제어 : 비교연구, 한국 건국 시조신화, 중국 건국 시조신화, 인물, 모티프

1. 서론

신화는 거래 단위로 전승되는 문학이다. 비록 그 내용이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사회생활을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점¹⁾에서, 동일한 생활양식을 영위하는 민족에게 전승된다.²⁾ 원형적 심상의 모티프가 신화나 여러 종교적 전통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³⁾ 것은 그 때문이다. 신화는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획득한 의례나 여러 문화적 행동 양식과 깊은 연관을 지니고 형성되므로 근원적인 체험을 실행하고 반복하면서 하나의 儀式이 된다.

특히 건국 시조신화는 거래의 시원에 대한 자긍심을 나타내는 수단이

-
- 1) 袁可 / 전인초 외 역, 『중국신화전설』 I, 민음사, 1996, p.45.(고리키의 ‘蘇聯의文學’ 내용을 재인용.)
 - 2)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一潮閣, 1993, p.19.
 - 3) 올란드 아코비 / 이태동 역, 『칼 융의 심리학』, 成文閣, 1978, p.75.

된다. 인접한 곳에서부터 지연적·혈연적 상관성에 따라 전파·전승되기 때문에 동일한 사고와 문화를 공유한 적이 있거나 공유하고 있는 집단끼리는 동일한 모티프를 가진 신화를 전승하게 된다.

신화의 이러한 특성은 한 거래와 다른 거래의 사유방식 내지는 문화적 특성, 나아가 세계관을 알아볼 수 있는 문학적 접근을 가능케 한다.

지금까지 한·중 상고시대 건국 시조 신화에 대한 연구는 국문학과 국사학계에서 주로 관심을 보였는데 주로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한국 상고시대 신화를 연구한 것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중국의 그것을 연구하거나 양국의 신화를 비교 연구하는 방향이었다. 우선 한국 상고시대 건국 시조 신화⁴⁾에 대한 연구는 부여·고구려·백제·신라·가야 건국 신화의 상호 영향과 형성과정 연구,⁵⁾ 신화 구분과 인식 연구,⁶⁾ 문화적 성격과 세계관에 관한 연구,⁷⁾ 한·중 건국신화를 비교한

-
- 4) 이하 ‘한국 건국 시조 신화’를 ‘한국 신화’로, ‘중국 건국 시조 신화’를 ‘중국 신화’라는 약칭을 병용한다.
- 5) 신화의 형성과정에 관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노명호, 『百濟 建國神話의 原形과 成立背景』, 『백제연구』 20집, 1989.
 주승택, 『고구려 건국신화 검토』, 『민속연구』 4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4.
 김기홍, 『高句麗 建國神話의 검토』, 『韓國史研究』 113집, 한국사연구회, 2001.
 강현모, 『백제 건국신화의 전승 양상과 의미』, 『비교민속학』 24집, 비교민속학회, 2003.
 박현숙, 『백제 建國神話의 형성과정과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39집, 한국고대사학회, 2005.
- 6) 신화 구분과 인식의 문제를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
 주승택, 『北方系 建國神話의 체계에 대한 試論』, 『관악어문연구』 7집, 서울대국어국문학과, 1982.
 이복규, 『부여 建國神話의 시대별 인식 양상』, 『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1995.
- 7) 문화적 성격과 세계관에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지병규, 『韓國神話의 研究 -建國神話에 나타난 陰陽五行思想-』, 『語文研究』 18집, 어문연구학회, 1988.
 장지훈, 『建國神話에 대한 一考察 -고구려·신라를 中心으로-』, 『부산사학』 19집, 부산경남사학회, 1990.
 김화경, 『高句麗 建國神話의 研究』, 『震檀學報』 86집, 진단학회, 1998.

연구⁸⁾를 위시하여 연구성과 검토, 신모·아리랑 기원 등⁹⁾ 다방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 성과는 신화의 문화적 성격과 정체성, 세계관에 대하여 연구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중국 신화에 대한 연구는 神話素에 대한 연구,¹⁰⁾ 신화적 내

김문태, 「韓民族 神話의 神·人 관계 -신의 이름과 인간의 숭앙태도를 중심으로-, 『도남학보』 19집, 도남학회, 2001.

김광순, 「韓·中 記錄에 나타난 高句麗의 正統성과 그 意味 -建國始祖神話와 民俗을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6집, 동아인문학회, 2004.

박대복, 「建國神話의 天概念과 巫概念」, 『語文研究』 32권 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나희라, 「신라의 건국신화와 의례」, 『한국고대사연구』 39권, 한국고대사학회, 2005.

남재우, 「가야의 建國神話와 祭儀」, 『한국고대사연구』 39권, 한국고대사학회, 2005.

윤성용, 「고구려 建國神話와 祭儀」, 『한국고대사연구』 39권, 한국고대사학회, 2005.

이두현, 「建國始祖神話와 巫祖神話研究」, 『대한민국 학술원 논문집』 46집 1호, 대한민국 학술원, 2007.

임재해, 「백락적 해석에 의한 김알지 신화와 신라문화의 정체성 재인식」, 『비교민속학』 33집, 비교민속학회, 2007.

8) 구조적 특징을 연구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오세정, 「건국신화의 제의적 서사구조 연구」, 『韓國古典研究』 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임태홍,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구조적 특징 -중국과 일본의 신화를 통해서 본-, 『동양철학연구』 52집, 동양철학연구회, 2007.

9) 연구 성과를 검토한 연구로는 ‘이복규, 「고구려 건국신화 연구성과 검토」, 『고구려연구』 1집, 고구려연구회, 1995.’가 있고, 신화에 등장하는 神母 신화소에 대한 연구로는 ‘윤철중, 「建國神話의 神母」, 『人文科學』 28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가 있으며, 아리랑 기원에 관한 연구로는 ‘조태영, 「한국 난생신화와 한국문학의 원형 -아리랑의 기원 및 근원적 성격과 관련하여-, 『한신인문학연구』 2집, 2001.’

10) 중국 건국 시조신화의 신화소는 주로 서유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그는 유기·현조·감생 신화소를 연구한 바 있다.

서유원, 「中國 古代 主要 始祖神話 中 棄子神話에 보이는 遺棄 모티브의 연구」, 『中語中文學』 17집, 한국중어중문학회, 1995.

서유원, 「中國 始祖神話의 특징과 玄祖神話의 고찰」, 『中國語文論譯叢刊』 13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04.

용의 해석 연구¹¹⁾가 있으나 한국 신화에 대한 연구보다 소략한 편이다. 그리고 한·중 양국의 상고시대 건국 시조 신화를 비교한 연구는 세 편¹²⁾이 있다. 이 논문은 미시적 접근으로 商나라와 주몽족이 天生觀을 가졌고, 周族은 地生觀을 가졌음을(민영란, 1999), 몽골 시조신화 알란고야 신화에서는 빛으로 감생하는 것이 주몽신화와 비슷하다는 사실을(장정해, 2005) 논의했고, 거시적 접근으로 우리 신화에는 지역개념·천신·동물 협력 내용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중국 신화에는 통치 사실·이계에 다녀오는 내용이 잘 나타난다는 사실(임태홍, 2007)을 각각 밝혔다.

본고에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건국 시조 신화 인물의 일생을 출현·탄생·유기(재수용)·쟁투·혼인·제의·죽음¹³⁾의 모티프로 나누어서 신화 인물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비교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구명하고자 한다. 이 방법을 택한 것은 기존의 연구가 놓치기 쉬운 신화 인물의 탄생, 성장, 혼인, 죽음에 이르는 과정마다 신화전승집단의 사유 세계와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 자료는 『三國遺事』를 중심으로 한국 고조선 단군 신화, 부여 동명왕 신화, 북부여 해모수 신화, 고구려 주몽 신화, 신라 박혁거세 신화,

서유원, 『中國 주요 始祖神話에 보이는 感生神話 연구』, 『中國語文論譯叢刊』 17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06.

11) 신화 해석에 관한 연구는 ‘빈미정, 『中國始祖神話의 解釋 試探』, 『中國學報』 46집, 한국중국학회, 2002.’가 있다.

12) 한국 건국 시조 신화를 다른 나라의 그것과 비교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민영란, 『『詩經』중 건국신화와 朱蒙說話의 비교연구』, 『中國學研究』, 중국학연구회, 1999.

장정해, 『중국 소수민족의 수조(獸祖)신화 비교연구 -이리 시조신화를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誌』 17집, 중국어문학회, 2005.

임태홍,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구조적 특징 -중국과 일본의 신화를 통해서 본-』, 『동양철학연구』 52집, 동양철학연구회, 2007.

13) 검토하려는 모티프를 ‘출현·탄생·유기(재수용)·쟁투·혼인·제의·죽음’ 일곱 가지로 정하였다. 여기서 ‘건국’에 대한 모티프를 다루지 않은 것은 건국 자체에 神聖性이나 神異性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부분적으로 ‘혼인’ 모티프와 관련하여 언급을 할 것이다.

가락국 수로왕 신화, 제주도 삼성 신화를 조사하되, 『三國史記』, 『世宗實錄』, 『高麗史』, 『序世文』, 『論衡』 등의 자료의 도움을 받고, 『史記』를 중심으로 중국 黃帝 신화, 하 우 신화, 은 설 신화, 주 후직 신화, 진 대업 신화, 한 고조 신화를 조사하되, 『詩經』, 『山海經』, 『博物志』, 『중국의 신화전설 I·II』¹⁴⁾ 등도 검토하였다. 신화 자료는 앞의 일곱 가지 모티프 중 세 개 이상 나타나는 것을 선정하였다. 단 백제 건국 시조신화는 신화적 요소가 나타나지 않거나 약하기 때문에 제외한다.¹⁵⁾

연구 범위로서 시대 설정은 上古時代로 하였다. 상고란 선사시대를 지칭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역사시대를 포함하는 古代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¹⁶⁾ 한국 자료로는 단군에서 김수로왕 신화까지, 중국 자료로는 황제에서 한 고조까지의 건국 시조신화를 대상으로 한다.¹⁷⁾

본 연구는 양국의 건국 시조신화의 모티프 분석을 통하여 신화의 특징과 의미를 규명하고, 양국 신화 전승집단의 神話觀을 탐색하며, 신화에 나타나는 사회 배경과 그들의 세계관, 문화적 행동 양식의 차이를 파악하고, 신화 전승 집단의 태도를 이해 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모티프 검토 및 분석

2.1. 출현 모티프

출현 모티프는 신화의 주인공이 어떤 방식에 의하여 세상에 나타나게

-
- 14) 이 자료는 ‘袁可 저/전인초·김선자 옮김, 『중국의 신화전설 I·II』, 민음사, 1996.’을 말한다.
- 15) 박현숙, 『백제 건국신화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39집, 한국고대사학회, 2005, p.32.
- 16) 중국에서는 실제 고대라는 개념으로 상고시대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박정양 (1997)에서도 상고시대 안에 고대라는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 17) 국명은 없으나 역사적, 문화적으로 국가에 큰 영향을 끼친 황제와 주나라 시조 후직은 포함시켰다.

되었는가에 관한 것이다. 한국 신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강 모티프가 많고, 제주도 삼성 신화는 용출 모티프가 나타나며, 중국 신화는 자연물에 감응하여 출생하는 감생(감응) 모티프가 자주 나온다.

2.1.1. 천강 모티프

한국 건국 시조신화에는 천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용이 나타난다. 천신 하강 모티프는 고조선의 단군 신화, 북부여의 해모수 신화, 신라의 박혁거세 신화, 가락국의 수로왕 신화가 있다.

[자료 1] 단군신화¹⁸⁾

환웅은 무리 삼천 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마루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니 이곳을 神市라 하고, 이 분을 환웅천왕이라 한다.(일연, 『삼국유사』 제일권 고조선 조.)

[자료 2] 해모수 신화

‘古記’에서 말했다. 전한 선제 신작 3년 임술 4월 8일에 천제가 訖升骨城에 내려와서 오룡거를 타고 도움을 정하여 왕이라 칭하였다. (일연, 『삼국유사』 제일권 북부여 조.)

[자료 3] 혁거세 신화

거기에는 백마 한 마리가 꿇어 앉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곳을 찾아가 살펴보니 자줏빛 알 한 개가 있었다. 맡은 사람을 보자 길게 울며 하늘로 올라가 보았다. 그 알을 쪼개니 모양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어린 아기가 나왔다.(일연, 『삼국유사』 제일권 신라 시조 혁거세왕 조.)

[자료 4] 수로왕 신화

후한의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 임인 3월 계육일에 북쪽 구지봉에서 무엇을 부르는 이상한 소리가 났다. …… 얼마 후 우러러 보니 한 줄기 자주

18) 단군신화는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제왕운기』, 『응제시주』,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승람』, 『규원사화』, 『동국통감』 등에 전한다. 본고에서는 이 중 기록 연대가 가장 높은 『삼국유사』를 저본으로 살폈다.

빛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닿았다. 줄 끝을 찾아보니 붉은 보자기에 금합이 싸여 있었다. 함을 열어 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빛 알 여섯 개가 있었다.(일연, 『삼국유사』, 제이권 가락국기 조.)

[자료 1]의 단군신화에서 하느님 환인의 아들 환웅은 하느님의 아들이다. 환인은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스릴 뜻이 있는 것을 알고, 천부인 세계를 주어 세상에 내려가도록 하였다. 그는 풍백·우사·운사를 거느리고 무리 삼천 명과 함께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천신의 하강이다. 단군은 천제의 직계자손으로서 신성한 혈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¹⁹⁾ 다만 환웅이 터 잡은 태백산에서 태어난 단군이 다시 본향인 산으로 돌아가 산신이 됨으로써²⁰⁾ 단군은 천신계 산신이 된다.

[자료 2]는 『삼국유사』에만 독립된 이야기로 전해오는데 내용은 가장 간략하다. 원래는 『舊三國史』의 내용이 가장 오래된 것이나 이규보가 그것을 <동명왕편>에 인용하면서 주몽 신화에 편입된 것으로 보이는데,²¹⁾ <제왕운기>나 『세종실록』 지리지 주몽 신화에도 소개되어 있다.²²⁾ 다른

19) 박대복, 「建國神話의 天觀念과 巫觀念」, 『語文研究』 32권 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p.222.

여기서 박대복은 神聖을 등장인물의 초월성이 天(天帝)에 근거를 두고,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며, 혈통관념으로 파악되고, 신이를 자연현상이나 천문현상에 바탕을 두고, 간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며, 징조로 파악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하늘에서 하강하는 초월성이 天(天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 神聖으로, 자연·천체에 감응 되거나 신령한 동물과 교접하여 태어난 것을 神異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런 구분은 신화적 인물의 바탕이 天(天帝)에서 하강하는가 아니면 자연(천체)이나 동물과 감응 교접하는가로 판명하는 것이 간명하기 때문이다.

20) 서대석, 『한국 신화 연구』, 집문당, 2001, p.25.

21) 오세정, 「건국신화의 제의적 서사구조 연구」, 『한국고전연구』 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p.285.

22) 해모수 신화와 주몽 신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찍이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p.71.'에서 언급한 바 있다. 서대석은 단군 신화 전승과 해모수 신화 전승이 각각 전해지다가 어느 시점에 서로 교섭되면서 고구려를 자기 집단의 역사로 수용하면서 시조 주몽을 단군의 후예로 나타내기도 하고, 해모수의 후예로 등장시키기도 하였다고 했다. 이 견해는 혈통의 우월성을 내세우

자료에서는 해모수가 천제의 아들로 나타나기도 하나 여기서는 해모수가 天帝로서 五龍車를 타고 하늘에서 흡승골성에 하강하여, 神聖性이 드러난다. 이 자료에서 해모수는 천제이고, 이름에 ‘해’자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태양 숭배사상과 관련되어 있다.

[자료 3]에서 말이 나정 옆에서 발견되었다. 그 곁을 지키고 있던 백마가 여섯 촌장이 나타나자 하늘로 올라갔다고 함으로써 天馬가 말을 가져왔음을 상징하고, 사후 승천을 통하여 혁거세가 天降했음을 암시하여 신성성을 드러낸다. 이는 혁거세 집단이 하늘을 숭배하는 집단임을 암시한다. 하늘을 나는 말을 등장시킨 것은 알영 신화에서 알영이 계룡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함으로써, 천마와 용마를 통하여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음을 표현하였다.

[자료 4]에서 九千은 혁거세 신화의 육촌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어느 날 구지봉에 이상한 소리가 나자 사람들에게 <龜旨歌>를 부르며 맞이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하늘에서 자주색 줄이 내려오면서 줄에 금빛합이 매달려 있었다. 함 속에는 알 여섯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알에서 나온 이가 首露王이다. 天降은 수로의 신성성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내용은 고대국가가 형성되면서 수렵이나 유목을 하던 세력이 남하하여 선주민 집단을 흡수 통합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음을 뜻한다.²³⁾ 신화시대의 사유 방식으로 보면 신화는 건국의 시조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건국 사실이나 과정을 자랑하려고 만든 문학 양식인데, 다른 집단을 통합하여 나라를 세우는 행위가 하늘에서 보장해주는 권위의 실현임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²⁴⁾

2.1.2. 감생 모티프

감생 모티프는 햇빛에 感應되거나 거인의 족적, 또는 자연계의 신비한

려는 면을 인정할 때 설득력이 있다.

23) 김화경, 『한국 신화의 원류』, 지식산업사, 2005, p.174.

2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1996, p.71.

힘에 감응되어 인물이 탄생되는 것이다. 각 거래의 숭배 대상이나 토tem 동물을 感生 모티프로 표현하였기 때문이다.²⁵⁾ 한국은 동명왕·주몽 신화에서, 중국은 황제·후직·한 고조 신화에서 나타난다.²⁶⁾

[자료 1] 동명왕 신화

北夷의 탁리국왕 시녀가 임신을 하였다. 왕이 죽이려고 하자 시녀는 “계란 같은 큰 기운이 하늘에서 내려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왕충 저/ 이주행 옮김, 『論衡』, 소나무, 1996, pp.121~122.)

[자료 2] 주몽 신화

금와가 이상하게 여겨 유화를 방에 가두었는데, 햇빛이 방을 비추었다. 몸을 피하면 햇빛이 다시 쫓아 와 비추어 임신을 하였다.(일연, 『삼국유사』, 제일권 고구려 조.)

[자료 3] 황제 신화

(황제의)어머니는 附寶인데, 祁野로 가서 큰 번개 북두의 樞星을 감싸는 것을 보았다. 그때부터 감응되어 잉태하고, 24개월 후에 壽丘에서 黃帝를 낳았다.(사마천, 『사기』 일권 오제본기 조)

[자료 4] 은 설 신화

은나라 설 임금의 어머니는 簡狄인데 有娥氏의 딸이고, 帝嚳의 둘째 아내가 되었다. 세 사람이 목욕을 하다가 玄鳥가 알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다. 간직은 그 알을 주워 먹고, 설을 잉태하여 낳았다.(사마천, 『사기』 삼권 은본기 제오 조)

[자료 5] 주 후직 신화

(姜嫄이) 마침 上帝의 엄지발가락 밟자국을 밟자 마음이 기뻐다. 잠시 쉰 뒤에 집으로 돌아오니 임신이 되었다. 뱃속의 태아가 움직이는 듯하자 더욱 조심하여 길렀다.(성백효 역주, 『시경집전』 하, 대아 생민지습, 전통문

25) 서유원, 『中國 주요 始祖神話에 보이는 感生神話 연구』, 『중국어문논역총간』 17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06, p.1.

26) 중국 건국 시조신화 외에도 많은 씨족 신화나 민간 신화에서 다양한 탄생 모티프가 나타난다.

화연구회, 1993, p.242.)

[자료 6] 진 대업 신화

秦나라 선조는 임금 전욱의 후예이고, 전욱의 손녀 女脩다. 여수가 베를 짜고 있었다. 玄鳥가 알을 떨어뜨리자 그것을 삼키고는 아들을 낳았는데 대업이다.(사마천, 『사기』 오권 진본기 제오 조)

[자료 7] 한 고조 신화

먼저 유온이 큰 연못 독에서 쉬다가 잠이 들어 신을 만나는 꿈을 꾸었다. 이때 번개와 천둥이 치고 어두워졌다. 태공이 가서 보니 교룡이 유온의 몸을 덮치고 있었다. 그리고 산기가 있어 마침내 고조를 낳았다.(사마천, 『사기』 팔권 고조본기 제팔 조)

[자료 1]은 『논형』에 전하는 동명왕 신화다. 일찍이 부여의 시조 동명이 있었고, 고구려 시조 주몽에게 동명성왕이라는 칭호를 붙인 것은 고려 때의 일이다.²⁷⁾ 탁리국의 시녀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큰 기운 때문이었는데, 이는 태양 감응이다. 여기서 부여의 시조 동명왕이 감생으로 태어났다.

[자료 2]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유화부인의 기록이다. 부인이 방에 간혀 있는데 햇빛이 따라와 비추어 임신을 하였다. 방안에 갇히게 된 것은 응녀가 굴속에서 지냈던 것처럼 새로운 탄생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자료 3]은 중국인들이 시조이자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黃帝 탄생 신화이다.²⁸⁾ 중국 황제의 어머니 부보가 번갯불이 북두칠성의 추성을 감싸는 걸 보고 임신을 하였다. 여기서 번갯불은 태양빛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보가 태양신과 교감을 통하여 잉태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였다.²⁹⁾ 황제 이후 그 후손 소호·전욱·순·우 임금 역시 그 선대

27) 여기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이복규, 『夫餘 建國 神話의 시대별 인식 양상』, 『국어교육』, 국어교육학회, 1995, pp.344~351.’을 참조하기 바람.

28) 황제의 후손은 뒷날 중국의 제왕이 된 인물이 많으므로 황제의 탄생신화를 살펴볼 수 없다.

29) 서유원, 위의 논문, 2006, p.11.

신화의 영향을 받아 햇빛이나 별빛·번갯불·무지개·유성 등의 자연현상에 감응하여 탄생한 인물로 표현된다.³⁰⁾

[자료 4]는 簡狄이 玄鳥의 알을 먹고 은나라 시조인 계를 낳았다는 신화다. 여기서 현조는 제비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오히려 봉황새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³¹⁾ 이 자료의 특징은 神鳥의 알을 먹고 감응되어 아들을 낳았다는 데 있다.

[자료 5]는 강원이 주나라 시조인 后稷을 낳게 되는 과정을 나타낸 신화이다. 강원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上帝의 엄지발가락 족적을 밟자 마치 남녀가 교접을 하는 것처럼 마음이 기뻐다고 했다. 여기서 상제의 족적을 밟고 神聖한 탄생을 기원한 것은 강원의 祈子儀式이다. 이처럼 족적을 밟고 임신한 신화는 이미 전해오던 ‘華胥가 커다란 발자국을 밟고 임신을 하여 伏羲를 출산하였다는 이야기’에 영향을 받은 神異이다.

[자료 6]은 진나라 시조 대업이 출생하게 되는 과정을 밝힌 신화다. 여수가 배를 짜다가 현조가 떨어뜨린 알을 먹고 회임하여 대업을 낳았다는 내용은 [자료 4]와 같은 神鳥 신앙이다.

[자료 7]은 한 고조의 어머니 유온이 큰 연못 속에서 잠들었다가 교룡과 교접을 하여 마침내 고조를 출산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송서』³²⁾에 요임금의 어머니 慶都가 용에 감응되어 그를 낳았다는 감생신화와 유사하다. 자신들의 토템, 또는 위대한 신이라고 믿는 대상을 설정함으로써 다른 거래보다 우월한 영웅적 인물임을 알리기 위한 방법이다.

2.1.3. 용출 모티프

湧出 모티프는 땅에서 사람이 솟았다는 모티프로써 감생과는 다르다. 이런 모티프를 가진 신화는 제주도 三姓 신화가 있다.

30) 서유원, 위의 논문, 2006, p.17.

31) 尹乃鉉, 『商王朝史의 研究』, 경인문화사, 1978, pp.66~77.

32) 『宋書』 27권 志 제17 符瑞 上.

[자료 1] 삼성 신화

홀연 세 神人이 있어 從地湧出하였는데, …… 絶岳이 세 사람을 용출시켰으니, 첫째는 고을나, 둘째는 양을나, 셋째는 부을나였다.(고득중, 『고씨족보』 서세문, 1450.)³³⁾

이 기록에 따르면 세 신인 고을나·양을나·부을나가 한라산 북쪽 기슭 광양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이전 신화에서 볼 수 없던 용출 모습은 남방 문화 이입설³⁴⁾을 낳았다. 땅에서 솟아났다는 것은 지신을 뜻하므로 지신계 신화로 볼 수 있다.

2.2. 탄생 모티프

건국 시조가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는지를 나타낸 것이 탄생 모티프이다. 여기에는 신이하게 임신되어 모태나 아버지의 시신에서 태어나는 胎生 모티프와 신이하게 임신하되 알로 태어나는 卵生 모티프가 있다.³⁵⁾

2.2.1. 태생 모티프

태생 신화는 천신이 직접 하강하는 신화보다는 합리적인 사고가 이루어지던 시기, 또는 그러한 집단에서 형성된 모티프이다. 이런 신화로는 한국의 단군·동명왕 신화, 중국 하 우·은 설 신화·진 대업 신화 등이 있다.

[자료 1] 단군신화

웅녀는 혼인할 사람이 없어, 매일 신단수 아래서 아기 배기를 축원하였

33) 삼성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영주지」, 「장흥고씨족보」, 「고씨족보」인데, 이 자료는 「고씨족보」에 「영주지」 기록과 「성주고씨전」과 함께 기록된 것으로 유일하게 ‘序世文’에만 건국신화가 나타난다.

34) 현용준, 『삼성신화연구』, 『탐라문화』 2호, 탐라문화연구소, 1983.

35) 제주도 삼성 신화에서는 땅에서 용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신라 김알지 신화는 계림의 황금 궤짝에서 아기가 출현하기도 한다.

다. 이에 환웅이 짐짓 변하여 그녀와 혼인했더니, 바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일연, 『삼국유사』 제일권 고조선 조.)

[자료 2] 동명왕 신화

시녀가 아이를 낳자 왕이 돼지우리에 버렸다. …… 왕은 上帝의 아들로 생각하여 그 어미에게 노비로 거두어 기르도록 하고, 東明이라 부르며 우마를 치게 하였다. …… 그는 부여에 도읍하여 왕이 되었다.(왕충 저/ 이주행 옮김, 『論衡』, 소나무, 1996, pp.121~122.)

[자료 3] 황제 신화

어머니 부모가 邲野로 가서 큰 번개 북두의 樞星을 감싸는 것을 보았다. 그 때 감응되어 잉태를 하였다. 24개월 후에 壽丘에서 黃帝를 낳았다.(사마천, 『사기』 일권 오제본기 조)

[자료 4] 하 우 신화

곤은 치수를 이루지 못한 것이 억울하여 시체가 삼 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혼이 살아있었다. 그의 뱃속에서 아들 禹가 자라고 있었다. …… 천신이 내려와 곤의 시신을 가르자 곤의 뱃속에서 虬龍이 한 마리 튀어나왔는데 그가 하나라 우임금이 되었다.(원가, 『중국신화전설1』, 1996, pp.505~509.)

[자료 5] 은 설 신화

앞의 '2.1.2. 감생 모티프'의 [자료 4] 참조.

[자료 6] 진 대업 신화

앞의 '2.1.2. 감생 모티프'의 [자료 6] 참조.

[자료 7] 한 고조 신화

앞의 '2.1.2. 감생 모티프'의 [자료 7] 참조.

[자료 1]에서 단군은 곰이 인간으로 化한 熊女에게서 태어난다. 그는 아버지 환웅의 神性和 獸性を 지녔던 어머니 웅녀의 人性을 겸비하여 神聖한 인물이 되었다. 이는 천부신과 지모신의 결합으로 새로운 나라와

지도자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자료 2]는 태생 모티프를 가졌다. 특히 후대에 형성된 주몽신화에서 주몽이 엄체수에서 추격자에게 쫓겨 활로 물을 치자 자라와 물고기가 다리를 놓아 건너게 해준다는 대목은 거의 일치한다. 주몽 신화는 고구려를 건국하고, 동명은 부여를 건국하는 점이 다르나, 서사에 나타나는 인물은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자료 3]은 부보가 번개와 별빛에 감응되어 황제를 낳았다는 신화다. 빛에 감응이 되었으나 아이로 태어났으므로 태생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

[자료 4]는 중국 하나라의 우임금 신화이다. 요임금 때 息壤을 훔쳐 치수를 한 곤의 屍身에서 태어난 아들이 禹다. 이 신화는 시신에서 생명이 태어난다는 신이한 탄생 모티프를 지니고 있다. 우가 처음 태어난 모습은 虵龍이었다. 그리고 칼로 곤의 배를 가르자 곤의 시신이 황룡으로 변했다고 하였다.³⁶⁾ 이런 신이한 탄생은 치수사업의 성공으로 舜으로부터 帝位를 물려받았다는 역사적 사실과도 부합한다.³⁷⁾ 용은 물을 주관하는 신이다. 우의 아버지 곤은 죽어 황룡이 되고, 그 아들은 규룡이 되었다고 하였다. 하 우가 규룡으로 태어난 것은 자신의 치수 공적과 관련 있다.

하 우 신화와 달리 신라 알영 신화는 알영정 가에서 鷄龍의 왼쪽 옆구리에서 탄생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태어났을 때 인물이 아름다웠으나 입술이 마치 닭의 부리와 같아 월성 북천에 목욕을 시키니 부리가 떨어졌다고 한다. 부리는 닭과 관련이 있으므로 알지가 계림의 금궤에 있을 때 닭이 울었다는 신화와 관련지어 알영이 김씨 족과 관련이 있다고도 한다. 또 석가모니처럼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뒷날 불교적 윤색을 가정할 수는 있으나 이 신화도 하 우 신화처럼 물과 관련이 있으며, 알영은 계룡의 몸에서 났으므로 龍女라고 할 수 있다.³⁸⁾ 이런 발상은 그들이

36) 『山海經』 海內經.

37) 李春植, 『中國史序說』, 교보문고, 1991, p.33.

38) 임재해, 「맥락적 해석에 의한 김알지 신화와 신라문화의 정체성 재인식」, 『비교민속학』 33집, 비교민속학회, 2007, p.594.

최고신으로 믿는 용을 조상으로 하여 과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자료 5]의 은 설 신화는 한국 주몽·혁거세·수로왕 신화처럼 사람이 알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알을 먹고 사람을 출산하는 신화[吞卵懷孕神話]여서 卵生神話와는 차이가 있다. 神鳥 봉황의 기운을 받아 출생했다는 것은 봉황토템을 통한 신이성의 표현이다.

[자료 6]은 여수가 배를 짜다가 현조가 떨어뜨린 알을 먹고 회임하여 대업을 낳았다는 신화다. 임신과 출산의 과정이 [자료 6]의 은 설 신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현조 봉황토템을 가진 신화 계통이다.

[자료 7]은 고조의 아버지 태공이 주위가 캄캄해지는 것을 보고 연못가로 나가서 교룡이 아내 유운을 덮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는 교룡에 감응된 것이고, 그리고 아기로 태어났으므로 태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용은 천신이다.

이러한 태생 모티프는 합리적인 사고의 산물로서 난생 모티프보다 후대에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2.2.2. 난생 모티프

난생 모티프는 신성한 알이 天降하거나 임신이 되어 알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주몽·혁거세·수로왕 신화가 대표적이고, 중국 신화에는 없다.³⁹⁾

[자료 1] 주몽 신화

금와가 이상하게 여겨 유화를 방에 가두었는데, 햇빛이 방을 비추었다. 몸을 피하면 햇빛이 다시 쫓아 와 비추어 임신을 하고 알을 하나 낳았는데, …… 왕이 쪼개려고 하였으나 쪼갤 수 없어 그 어미에게 돌려주었다. 어미가 덮어서 따뜻한 곳에 두니까 한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다.(일연, 『삼국유사』 제일권 고구려 조.)

39) 단 중국 민간 설화에서는 나타난다.

[자료 2] 혁거세 신화

혁거세 신화는 '2.1.1. 천강 모티프'의 [자료 3] 참조.

[자료 3] 수로왕 신화

수로왕 신화는 '2.1.1. 천강 모티프'의 [자료 4] 참조.

[자료 1]에서 주몽 신화는 「論衡」에 수록된 부여의 동명왕 신화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⁴⁰⁾ 즉 부여계 동명 신화가 먼저 있었고, 고구려계 주몽 신화는 그것에 영향을 받았다. 유화부인은 방안에 갇혔을 때 햇빛에 감응되고, 알을 낳아 유기한 뒤 재수용 한다. 이런 난생 신화에서 알에 대한 논의는 일찍부터 있었다. 알을 태양의 상징으로 보기도 하고,⁴¹⁾ '알'이 '날알'과도 상통하므로 地母 穀神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도 한다.⁴²⁾

[자료 2]와 [자료 1]은 난생 모티프를 가진다는 점, 천강 모티프를 가졌다는 점, 사후에 승천했다는 점에서 같으나 전자가 六村長에 의해서 알이 발견된다. 알이 백마에 의해서 천강했다면, 혁거세 신화에서는 출산의 주체인 모계 혈통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양육 주체인 부계 집단의 추대를 인정⁴³⁾한 것이 된다.

[자료 3]의 수로왕 신화도 모계 출산을 부정하는 신화다. 신라 혁거세 신화가 육촌장의 맛이 속에 알을 수용했다면 가락국 수로왕 신화는 九千의 맛이 속에 알이 수용된다. 그러나 금궐 화소는 김알지 신화와 비슷하나 김알지가 아이로 출현하고, 수로는 자춧빛 줄에 묶여 내려온 금궐의 여섯 알로 천강했다는 점에서 신화 전승집단이 서로 다름을 보여준다.

40) 이런 견해는 '이복규, 『夫餘 建國 神話의 시대별 인식 양상』, 『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1995, pp.355~361.'에서 찾을 수 있고, '이복규, 『동명 신화와 주몽 신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성과 검토』, 『국제어문』 12·13집, 국제어문학연구회, 1991, pp.199~222.'에서도 논의한 바 있다.

41) 최남선, 『增補 三國遺事』, 서문문화사, 1983, p.36.

42) 柳東植, 『神話와 儀禮에서 본 古代韓國人의 信仰形態』, 『한국종교학』 1, 1972, p.22.

43) 임제해, 앞의 논문, 2007, p.593.

2.3. 유기 모티프

遺棄 모티프는 신화의 주인공이 신이하게 태어나 버림을 받았다가 재수용 되는 과정을 나타낸 모티프이다. 여기에는 태생 유기와 난생 유기
가 있다.

2.3.1. 태생 유기 모티프

태생 유기 신화는 중국의 주 후직, 부여의 동명왕 신화뿐이다.

[자료 1] 주 후직 신화

중국 周族의 시조 후직은 어머니 강원이 상제(거인)의 엄지 발자국을 밟아 태어났다. 신이하게 태어났으나 좁은 길에 버려졌다. 그러자 소·양이 그를 보호하고, …… 큰 새가 날개로 따뜻하게 덮어 주었다. 새가 날아가자 후직은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마침내 구하였다.(성백효 역주, 『시경』 대아 생민지습, 전통문화연구회, 1993, p.243~245.)

[자료 2] 동명왕 신화

앞의 ‘2.2.1. 태생 모티프’에서 [자료 2] 참조

[자료 1]에서 후직 역시 신이한 탄생으로 유기된다. 그의 어머니 강원이 상제의 발자국을 밟아 임신하는 것은 비정상적 출생이므로 사람들은 그것을 상서롭지 못하다고 여겼다. 그리고 울지 않거나 유복자여서, 또는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버렸다.⁴⁴⁾ 그러나 동물들이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다시 사람에게 수용된다. 유기장소는 길, 숲, 얼음 위로 나타난다. 얼음은 물가를 뜻하는 것으로 물가 유기는 세례의식과 같은 일종의 통과의례라고 할 수 있다.⁴⁵⁾

44) 서유원, 『中國 古代 주요 始祖說話 중 棄子神話에 보이는 遺棄 모티브의 연구』, 『중어중문학』 17집, 한국중어중문학회, 1995, p.5.

45) 서유원, 위의 논문, 1995, p.18.

[자료 2]에서 동명왕 역시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유기된다. 처음에는 돼지우리에, 두 번째는 말 마굿간에 버려지나 그때마다 가축들이 숨을 불어넣어 아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가축들의 도움은 그 집단의 유목이나 수렵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토템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2.3.2. 난생 유기 모티프

난생으로 유기되는 신화는 앞의 ‘2.2.2. 난생모티프 [자료 1] 주몽 신화’가 있다. 이 신화에서 알은 태어나 버려진다는 점이다. 개·돼지에게 주니 먹지 않고, 길에 버리니 소·말이 그것을 피해가고, 들에 버리자 새·짐승이 보호하였다. 왕이 이상하게 여겨 알을 쪼개려고 했으나 쪼개지 못하고 그 어미에게 돌려주었다. 동물이 알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알이 神聖하다는 표현이다. 그리고 유화부인이 알을 따뜻하여 아이가 부화되었다. 신이한 탄생이다. 태어난 아이는 재주가 많고 영특하여 건국을 하게 된다. 이처럼 유기되었다가 재수용되는 과정을 Campbell은 표준적인 경과의 과장된 표현⁴⁶⁾이라고 하였다. 위대성을 표현하는 방법이란 것이다.

2.4. 쟁투 모티프

쟁투⁴⁷⁾ 모티프는 건국을 하기 전·후에 쟁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쟁투는 인물이 왕위에 등극하기 까지 거치는 통과의례와 창업의 위대성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한국 신화는 동명·주몽·해모수·수로왕·삼성 신화 등이고, 중국에서는 황제·하우 신화가 있다.

[자료 1] 동명왕 신화

동명의 활솜씨가 뛰어나자, 왕은 그에게 나라를 뺏길 것이 두려워 그를

46) Joseph Campbell,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New York, 1968, p.30.
47) 투쟁과 뜻이 비슷하나 정권타도의 의미와는 달리 겨루기란 의미로 ‘쟁투’란 용어를 사용했다. 이 용어는 김열규(1993)에서도 쓰이고 있다.

죽이려고 하였다. 동명이 남쪽으로 도망가다가 掩漉水에 이르러,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었고, 동명이 건너자 흠어져 추격병이 건널 수 없었다.(왕충 저/이주행 옮김, 『論衡』, 소나무, 1996, p.122.)

[자료 2] 주몽 신화

왕의 여러 아들과 신하가 주몽을 죽이려고 하니 …… 掩水에 이르러 강물을 보고 말하였다. ‘나는 천제의 아들이며, 하백의 손자이다.’ …… 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어 건너게 한 다음 흠어지니 추격하던 기마병은 건널 수 없었다.(일연, 『삼국유사』, 제일권 고구려 조.)

[자료 3] 혁거세 신화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이 되던 어느 날, 왕이 하늘로 올라갔다. 7일 후 그 遺體가 땅에 흠어져 떨어졌다. 그리고 왕후도 역시 왕을 따라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이 합장을 하려고 하자 큰 뱀이 나타나 방해를 해서 五體를 각각 장사지내 오름을 만들고, 능 이름을 蛇陵이라 한다.(일연, 『삼국유사』, 제일권 신라 시조 혁거세왕 조.)

[자료 4] 해모수 신화

하백이 예를 갖추어 해모수왕을 맞이하여 좌정(坐定)하고 말했다. “혼인의 예는 천하의 규범인데, 어찌 이처럼 실례하여 나의 문종을 욕되게 하는가. 왕이 천제의 아들이면 어떠한 신이함이 있는가?” 하였다.

왕이 대답하였다. “오직 시험해 보면 알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하백이 뜰 앞의 물에서 잉어로 변하여 물결을 따라 놀자, 왕이 물개로 화하여 잡으려 했다.(『세종실록』 지리지 평양부 조.)

[자료 5] 수로왕 신화

탈해가 말했다. “그렇다면 술법으로 거뒀 봅시다.” 수로왕이 승낙하였다. 순간 탈해가 변하여 매가 되자 왕은 변하여 독수리가 되었다. …… 이에 탈해가 항복을 하였다.(일연, 『삼국유사』, 제이권 가락국기 조.)

[자료 6] 삼성 신화

세 사람이 …… 射矢卜地하였는데, …… 구백년 후, 세 신인이 각자 돌을 던져 용력을 시험하였다. 고씨가 위, 양씨가 가운데, 부씨가 아래였다.(고득중, 『고씨족보』 서세문, 1450.)

[자료 7] 황제 신화

치우가 난을 일으키고 황제의 명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황제가 장수와 제후를 소집하여 치우와 涿鹿 들판에서 싸워 치우를 잡아 죽였다.(사마천, 『사기』 일권 오제본기 조)

[자료 8] 하 우 신화

우가 홍수를 다스릴 때는 직접 삽과 삼태기를 들고 폭풍우를 무릅쓰며 늘 앞장을 섰다. 그는 구주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홍수를 이겨냈다.(원가, 『중국신화전설1』, 1996, pp.537.)

[자료 9] 한 고조 신화

고조는 秦 2세를 공격하였고, 진이 망하자 초 항우를 쳤다.(사마천, 『사기』 팔권 고조본기 제팔 조)

[자료 1]은 [자료 2]와 내용이 흡사하다. 동명과 주몽이 건국을 위하여 남하를 하던 중 북부여의 추격병과 쟁투를 하는 모습은 비슷하나 [자료 2]가 더 자세하다. [자료 3]의 혁거세 신화는 61세 때 승천했으나 큰 뱀이 나타나 유체를 함장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므로 사후에 일어나는 쟁투라고 할 수 있다. [자료 4]의 해모수 신화는 『삼국유사』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세종실록』지리지에 혼인을 앞두고 하백이 해모수를 시험하면서 변신 쟁투를 했다. [자료 5]에서는 탈해와 수로왕 사이의 쟁투인데, 수로가 즉위한 뒤의 일이었다. 이 모티프는 해모수 신화의 변신 쟁투와 아주 닮아 있어 서로 영향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망산도에서 육지에 도착하기 까지 허황후 일행과 수로왕 부하의 해상 경주 역시 쟁투이다. [자료 6]에서는 세 姓을 가진 신인이 활을 쏘아 차지할 땅을 정하고, 이어서 용력을 시험하여 왕, 신하, 백성의 신분을 획득하여 건국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자료 7]은 황제가 즉위 후에 염제와 치우를 평정하고 나라를 편안하게 하였음을 표현하였고, [자료 8]은 우가 즉위하기 전에 홍수라는 자연 재해에 맞서서 끝내 치수를 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자료 9]에서 한 고조는 즉위하기 전에 秦을 치고, 楚와 쟁투를 벌였다.

2.5. 혼인 모티프

혼인 모티프는 시조가 혼인을 하는 내용을 담은 모티프를 말한다. 한국 신화에서는 해모수·주몽·혁거세·수로왕·삼성 신화에서 나타난다.⁴⁸⁾ 그러나 중국 신화에서는 생략되거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료 1] 해모수 신화

하백이 그 때 해모수를 참으로 천제의 아들이라 생각하고 예로써 成婚하였다. …… 수레가 물에서 나오기 전에, 왕이 술이 깎다. 그리고 유화의 황금비녀를 빼서 혁여를 찌르고, 그 구멍으로 혼자 나와서 승천하였다.〔세종실록〕 지리지 평양부 조.)

[자료 2] 주몽 신화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 유리가 와서 태자가 되자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용납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오간·마려 등 열 명의 신하와 함께 남쪽으로 갔다.(김부식 저/이병도 역, 『삼국사기』 권제23 백제 본기 제일 온조왕 조.)

[자료 3] 혁거세 신화

이날 사량리에 있는 알영정 가에 계룡이 나타나서 왼쪽 갈비에서 어린 여자 아이를 낳았다. …… 두 성인은 13세가 되자 오봉 원년 갑자에 사내 아이는 왕이 되고, 그 여자 아이를 왕후로 삼았다.(일연, 『삼국유사』 제일 권 신라 시조 혁거세왕 조.)

[자료 4] 수로왕 신화

왕은 드디어 유천간에게 명하여 가벼운 배와 빠른 말을 가지고 망산도에 가서 …… 왕은 친히 나아가 맞아 함께 장막 궁전으로 들어갔다. …… 드디어 두 사람은 혼인하여 두 밤을 지내고, 또 하루 낮을 지냈다.(일연, 『삼국유사』 제이권 가락국기 조.)

48) 단군 신화에서는 환웅과 웅녀의 혼인 모티프는 나타나지만 단군의 혼인 모티프는 나타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자료 5] 삼성 신화

석함 속에는 푸른 옷을 입은 세 명의 처녀와 송아지·망아지, 다섯 가지 곡물의 씨가 있었다. …… 세 사람은 이에 정결한 희생물로 하늘에 고하고, 나이순에 따라 나누어 혼인하였다.(『고려사』 지리지. 고득중, 『고씨족보』 서세문, 1450.)

[자료 1]은 『삼국유사』 소재 북부여 조에 나타나는 해모수 기사가 너무 간략하여 『세종실록』 지리지 기사를 인용하였다. [자료 4]는 건국하여 왕이 된 후에 혼인을 하였고, 나머지 한국 자료는 혼인을 한 뒤에 건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 신화에서 [자료 2]의 주몽 신화를 제외한 [자료 1]에서 [자료 5]까지는 신성 혼인에 대한 모티프가 나타나고 있다. 이 신화에서 인물은 天父神과 地母神으로 나타난다. 유화 부인은 水神 또는 지모신으로 등장하고,⁴⁹⁾ 혁거세 신화에서는 알영 부인이 계룡에서 태어났다고 함으로써 지신계(杼)이자 천신계(용)의 신성으로 천신계 신성인 혁거세와 혼인하게 된다.⁵⁰⁾ 또 알영은 우물가에서 태어남으로 해서 수신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유화와 알영은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生生力을 가진 신이라 하겠다.⁵¹⁾ 수로왕 신화에서는 천부신인 수로왕과 바다를 따라 도래한 수신인 허황옥은 생생력의 모태가 되어 결합제전을 치르게 된다. 그로써 풍요와 번영, 無病과 안녕, 국가와 백성의 갱신을 기원한다.⁵²⁾

[자료 5] 삼성 신화는 『고려사』지리지와 고득중이 기술한 『서세문』의 기록이다.⁵³⁾ 이 신화에서 땅에서 용출한 세 사람은 토착신으로써 농업신

49) 주몽이 남하할 때 자라와 물고기를 이용하여 무사히 강을 건너게 한 것은 수신의 권능을 보인 것이고, 유화가 비둘기를 보내 곡식을 전함으로써 지모신이자 곡신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50) 조태영, 『한국 난생 신화와 한국문학의 원형』, 『한신인문학연구』 2권, 2001, p.6.

51) 김열규, 『韓國文學과 文學研究』, 일조각, 1993, p.213.

52) 김열규, 위의 책, 1993, p.222.

53) 이 신화의 서지와 이본에 대해서는 ‘정진희, 『朝鮮初 濟州 <三姓神話>의 문자화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30집, 한국고전문학회, 2006, pp.255~257.’

이고, 도래한 세 여자 역시 수신이자 송아지·망아지·오곡을 가지고 온 가축신이자 농업신이다. 토착신과 도래신이 지신계이거나 수신계여서 유화나 알영 처럼 생산으로 나라를 풍요롭게 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

중국 신화에서는 평범한 혼인 모티프는 나타나지만 신성 모티프는 나타나지 않는다. 「사기」 오제본기에 나타난 황제 신화에서는 西陵의 딸 嫫祖에게 장가들었는데 그녀가 正妃이고, 아들을 둘 낳았다고 했다. 하우 신화에서는 하 우와 女嬌의 로맨스적인 사랑을 읽을 수가 있고,⁵⁴⁾ 「사기」 진본기에 나오는 진 대업 신화에서는 대업이 소전의 자식 女華와 혼인하여 아들 大費를 낳았다고 하였다. 「사기」 고조본기의 한 고조 신화에서는 呂公이 뒷날 고조가 될 劉季의 관상을 보고 딸을 시집보내는 긴밀한 정략이 엿보인다. 이들 신화에 나타나는 혼인은 대개 평범하거나 정략적인 것이어서 신이성이나 신성성을 찾기 어렵다. 특히 진 대업 신화는 신화 주인공이 건국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 건국하는데, 건국주의 시조로서 신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등장한다. 그 밖의 은 설 신화, 주 후직 신화는 혼인에 대한 모티프가 나타나지 않고, 자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이로 보건대 중국 신화가 기술되던 시기에 이미 父權이 확립되어 모계는 종속적인 지위였음을 말해준다 .

2.6. 제의 모티프

祭儀 모티프는 시조신화 속에 내포된 의례 또는 제의와 관련된 것을 말한다. 제의는 종교적 행위를 넘어 인간 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찾을 수 있는 소통 형식이다.⁵⁵⁾ 소통 형식이란 집단 구성원간의 일종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패턴을 뜻한다. 패턴은 어떤 정해진 행동 양식이 제의를 통하여 표출될 때 신화를 하나의 의미로 고정시킬 수 있다. 오늘날 제의가

참조.’

54) 원가, 『중국신화전설』 1, 1996, pp.522~524.

55) Eric W. Rothenbuhler, *Ritual Communication - From Everyday Conversation to Mediated Ceremony*, Sage Publications, 1988, p.4.

소멸되고 난 뒤 口述相關物로서의 신화는 종교·제의적 현실 그 자체로서의 언어를 의미한다.⁵⁶⁾ 따라서 신화를 제의 속에서 파악하는 일은 신화의 성격을 이해하는 접근법이 될 수 있다.

제의란 신성한 행위가 전제되면서 통과제의를 포함하는 주술이나 굿, 놀이가 연행되는 연출을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신화는 여러 제의가 수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 단군 신화에서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신단수 아래 좌정하는 모습에서 내림굿의 모습을,⁵⁷⁾ 웅녀가 굴속에서 21일 동안 썩과 마늘을 먹으면서 햇빛을 보지 않은 것에서 통과제의를 볼 수 있다.

해모수 신화에서도 해모수가 하백과 변신 시험을 하는 모습과 유화와 결혼하는 의식을 제의라고 할 수 있다.⁵⁸⁾ 중국 사서 「삼국지」 위서동이전에서는 천제와 고구려 시조 주몽에게 제사를 올리고, 유화부인이 방에 갇혀 천제(日神)에게 감응되어 주몽을 잉태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10월 동맹 때 나라 동쪽의 큰 굴인 隧穴에서 隧神을 맞이하여 압록강 水上に 설치한 신좌에 앉히고 제사를 지냈다.⁵⁹⁾ 이것도 제의의 모습이다.

혁거세 신화에서도 육촌장은 알에서 태어난 혁거세를 東泉에 목욕시켜 맞이하고, 알영을 北川에서 목욕시켜 부리를 떼고, 13세가 되자 혼인 제의를 행하였다. 수로왕 신화에서 구간이 지도자를 간구하며 <구지가>를 부르자 하늘에서 알이 담긴 궤가 내려오는 것으로 봐서 맞이굿을 한 것으로 보이며, 「삼국유사」에는 허비 일행과 수로왕 신하들이 망산도에서 부터 배를 타고 모의 쟁투를 하는 것은 혼인 의식이라 할 수 있다.⁶⁰⁾

56) 김열규, 『韓國民俗과 文學研究』, 일조각, 1993, p.5.

57) 나경수, 『韓國의 神話 研究』, 교문사, 1993, pp.61~63. * 이 논문에서는 한국 신화를 내림굿과 맞이굿으로 구분하고, 단군·주몽 신화를 내림굿 신화 구조로, 혁거세 수로왕 신화를 맞이굿 신화 구조로 파악한 바 있다.

58) 이 내용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타난다.

59) 윤성용, 「고구려 建國神話」, 『한국고대사연구』 39권, 한국고대사학회, 2005, p.23.

60) 혁거세와 수로왕 제의에 대해서는 ‘오세정, 앞의 논문, 2003, pp.286~290. 김열규, 앞의 책, 1993, pp.148~149.’ 참조 바람.

중국의 경우는 한국 신화와 달리, 제의에서 놀이나 굿보다는 祭祀 의 식만 남아있어 儀禮의 성격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黃帝 신화에서는 직접 나타나지 않으나 『史記』 索隱에서⁶¹⁾ 『大戴禮』의 기록을 인용하여 宰我와 공자의 대화를 밝히고 있다. 거기서 ‘황제가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서 이로우를 얻은 것이 백 년이고, 신으로 경외한 지 백 년이며, 사람들이 그를 자녀에게 가르친 것이 백 년’이기 때문에 이미 사람의 신분을 넘어섰다고 했다. 여기서 황제가 죽은 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교육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 우가 죽은 뒤 여러 설이 있었다. 『사기』에서는 회계에 禹穴이 있는데 민간에서는 우가 그 굴속으로 들어갔다고 하고, 『水經』 注에서는 하 우가 죽고 나자 우의 무덤에 자라난 풀을 새들이 풀을 정리했는데, 봄에는 작은 풀뿌리를 뽑고, 가을에는 잡초를 쪼아 없앴다고 한다.⁶²⁾ 이는 성묘를 하고, 제례를 행하였음을 뜻한다.

그러나 은 설 신화는 죽음으로만 나타나고 나머지 기록이 없어 제의 여부를 상고할 수 없고, 주 후직 신화나 진 대업 신화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고조 신화는 『사기』에서⁶³⁾ 고조의 태자였던 孝惠帝가 고조 사후에 제후에게 高祖廟를 세우고 歲時에 참례하여 제사를 올리게 했다는 내용으로 전한다.

이처럼 제례는 있으나 놀이와 굿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한국 신화와 다른 점이다. 이 모티프는 巫敎를 바탕으로 한 한국 신화 전승집단의 다양한 제의 문화 양식과 유교를 바탕으로 한 중국 신화 전승집단의 통일된 제례 문화 양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61) 사마천, 『史記』 권일, 오제본기 제일, 황제 조.

62) 『水經』 注 漸江水. ‘禹崩於會稽, 因而葬之, 有鳥來爲之耘, 春拔草根, 秋啄其穢.’

63) 사마천, 『史記』 8권, 고조본기 제8, 12년 조.

2.7. 죽음 모티프

죽음 모티프는 신화의 인물이 사후에 나타나는 죽음에 관한 것이다. 이는 신화 인물 서사의 결말을 통하여 신화의 성격을 가늠하게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단군 신화에서 단군은 1,908세를 살고,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서 山神이 되었다고 하였다. 사람이 산신이 되는 경우는 巫覡 신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속적 세계관의 산물이다.

해모수 신화는 五龍車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신성 혼인을 한 후 다시 오룡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여기서는 죽음에 대한 모티프가 나타나지 않는다.

주몽 신화에서는 주몽이 기린굴에서 조천석으로 통하여 말을 타고 오르내리며 天政을 하였다. 9월에 승천하여 내려오지 않으니 말채찍만으로 장사를 지냈다고 하였다. 주몽의 승천은 본향 회귀를 의미한다. 이런 회귀의 모습은 혁거세 신화에서도 나타난다. 혁거세가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 만에 승천했는데, 7일 만에 유체가 땅에 떨어져 흩어졌다. 백성들이 유체를 합쳐 장사하려 했으나 큰 뱀이 막으므로 五體를 각각 장사지냈다고 하였다. 주몽이 죽어서 천신이 되고, 혁거세의 유체가 뿌려져 대지의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농업신이 되었음을 암시한다.⁶⁴⁾

수로왕 신화에서는 승천 모티프가 나타나지 않는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서 ‘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25년 후 獻帝 立安 4년 기묘(서기 199) 3월 23일에 서거하니 나이는 158세였다.’고 하고, 國人이 대궐 동쪽에 장사 지내니 이름을 首陵王墓라고 하였다. 이처럼 승천 모티프가 나타나지 않는 까닭은 가락국기를 기록한 연대가 이미 신화시대가 아니고, 얼마 남지 않은 자료로 신화를 기록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중국 신화에서는 신이한 죽음 모티프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黃帝의

64) 나희라, 「신라의 건국 신화와 의례」, 『한국고대역사연구』 39권, 한국고대사학회, 2005, p.61.

경우 「사기」 오제본기에서는 100년을 재위하고 111세로 죽었다는 내용이 전부인데, 재아와 공자의 문답에서 제사 지낸 기사에서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列仙傳」에서는⁶⁵⁾ 황제의 승천 모티프가 나타난다.

마사황은 황제 때 馬鬣였다. 말 모습만으로도 생사의 진단을 할 줄 알아서 치료할 때마다 낫곤 하였다. 뒷날 어떤 용이 내려와서 …… 감초탕을 달여서 먹이자 나왔다. 뒤에서 가끔 병이 있으면 용이 물에서 나타나면 고쳐주곤 하였다. 어느 날 아침, 용이 황제를 태우고 가버렸다.

황제가 용을 타고 올라갔다고 했으므로 승천 모티프이다. 신이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사람이 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는 시조에 대한 역사의 신화화라고 할 수 있다.⁶⁶⁾

그 밖에 하 우는 회계산에서 죽었고, 은 설은 죽은 내용만 언급되고 있으며, 주 후직은 慶都의 들판에 장사지냈으며, 진 대업도 평범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나타난다.⁶⁷⁾ 다만 한 고조는 궁궐에서 죽어 태자가 사당을 세우도록 했다고 한다.

한국 신화에서는 사후에 신이 되거나 승천하여 신화 인물의 신성성을 표현하나, 중국 신화에서는 평범한 죽음이 나타난다. 이것은 허탄을 인정하지 않는 유교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3. 모티프에 나타난 특징과 의미

3.1. 모티프의 특징

2장에서는 살펴본 모티프의 특징은 출현·유기·쟁투·혼인·제의·죽음 모티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해 보았다.

65) 劉 向, 「列仙傳」 권상 마사황 조, 상해고적출판사, 1990, p.1.

66) 袁可 저/전인초·김선자 옮김, 앞의 책, 1996, pp.119~120.

67) 주 후직, 진 대업이 아직 건국 전이거나 재위 했더라도 나라가 망했거나 큰 업적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죽음의 신이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국명	신화명	출현			탄생		유기		쟁투		혼인		제의		죽음			모티프수
		천강	감생	용출	태생	난생	태생	난생	죽위전	죽위후	신성	평범	제의	제례	산신	승천	평범	
한국건국시조신화	단군	○			○								○		○			4
	동명		○		○		○											4
	해모수	○							○	○			○					4
	주몽		○			○	○	○				○	○			○		7
	혁거세	○				○				○	○		○			○		6
	수로왕	○				○				○	○		○				○	6
	삼성			○	○				○		○		○					5
중국건국시조신화	황제		○		○				○		○		○		○			6
	하우				○			○			○		○			○		5
	은설		○		○											○		3
	후직		○				○									○		3
	대업		○		○							○				○		3
	고조		○		○				○			○		○			○	6

<한·중 건국 시조신화의 모티프 실현 양상표>

위의 표에 나타난 모티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신화 인물의 출현 방식이 한국은 천강·감생·용출로 나타나고, 중국은 빛·상제·교룡에게 감생되는 신화와 현조의 알을 먹고 임신하는 모티프가 나타난다.

탄생 방식이 한국 신화에서는 태생·난생이 고루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 신화에서는 대부분이 태생한다. 난생은 천강하며 신성성을 가지고 있으나 태생은 임신의 신이성만 갖추고 있다.

유기 여부는 양국 모두 태생 또는 난생을 유기하는 내용으로 나타나는

데, 둘 다 임신과 탄생의 신이성을 획득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쟁투 모티프는 즉위 전·후에 나타나는데, 한국 신화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한국 동명·주몽·수로왕 신화에서는 독립의 쟁취를 위하여, 혁거세는 사후 농업신이 되어 대지를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수로왕과 해모수는 왕비가 될 사람과 결합(혼인)하기 위하여 쟁투를 벌인다. 그러나 중국 신화의 황제와 고조는 통일을 위하여, 하우는 치수를 위하여 자연과 쟁투를 벌인다.

혼인 모티프는 한국 신화에서만 신성 혼인으로 나타나고, 중국 신화에서는 평범한 결혼 형태로 나타난다. 한국 신화의 혼인은 천부신과 지모신, 또는 지신과 도래 여신의 결합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신화에서는 평범한 혼인 모티프만 나타나고 있어 대조적이다.

제의 모티프는 한국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국과 통과의례·놀이를 통하여 민족 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신화에서는 祭儀가 없고, 祭禮로 획일화 되어 있다.

죽음 모티프에서 한국 신화는 산신이 되거나 승천함으로써 신성성을 드러내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나, 중국 신화는 대체로 평범하게 죽어 장례하는 모습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봐서 한국 신화의 모티프는 4~7개가, 중국 신화에서는 3~6개가 나타나고 있어 한국 신화의 모티프가 풍부함을 알 수 있다.

3.2. 모티프 특징의 의미

한국 신화는 천강·감생·용출의 방식으로 출현하고, 태생과 난생이 고루 나타난다. 한국 신화에 천강 모티프가 나타나는 것은 한민족의 선조가 남부 시베리아와 중국 북부를 거쳐 만주와 한반도로 이주해 들어오면서⁶⁸⁾ 협력과 투쟁을 통한 건국 과정을 신성하게 표현한 것이다.⁶⁹⁾ 그

68) 한우근(1992: 6~7)에서는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즐문토기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몽고를 지나 한반도로 유입되었다고 하였고 조동일

리고 감생이나 난생은 태양숭배사상을 표현한 것이다.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고, 단군이 산신이 되는 것은 무속에서 高山·巨木·神竿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연결되어 천상의 신이 강림한다는 原義의인 우주관에서 연유한 것이다.⁷⁰⁾ 이런 무속적 세계관은 고구려 주몽에게도 이어져 고려 때까지도 신봉되었다.⁷¹⁾ 제주도 三姓시조의 용출에서는 카오스의 세계가 코스모스의 세계로 바뀌는 개벽 신화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삼성이 나타난 이후, 수렵 문화가 농업 문화로 변화하고, 각각 직능이 분화되어 자신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삼성시조와 혼인하는 배우자 역시 수로왕의 許妃처럼 도래한 생산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⁷²⁾ 이때 삼성시조는 지신으로 등장한다. 이로써 한국 신화에서는 신화 인물의 천강과 용출, 신성 탄생으로 신성성을 드러내고, 그를 통하여 천신·태양숭배·산악숭배·지신 사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화 인물은 胎生이나 卵生으로 탄생한다. 태생 신화는 임신과정에서 인물의 영웅적 신이성을 과시하고, 합리적 사고를 하던 시기의 모습을 드러낸다. 난생 신화는 시조의 계통이 하늘이나 태양과 관련성을 강조하여 신성함을 나타낸다.

신이한 방법으로 출생한 인물은 유기되었다가 사람이나 동물에 의해 보호되기도 하는데, 동물은 그 집단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숭배하는 동물토템이다. 유기된 인물은 재수용 되어, 자라면서 영웅적인 능력을 보여준다. 이는 棄子和 재수용을 통하여 통과의례의 과정을 보여주고, 신이성의 확인을 통하여 신화 인물의 위대성⁷³⁾을 부각시키기 위한

(1996: 71~72)에서도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

69) 투쟁의 모습은 주몽신화에서 잘 드러난다.

70) 김태곤, 『韓國巫俗研究』, 집문당, 1995, P.298.

71) 장주근, 「구전신화와 문헌화 과정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삼성신화를 중심으로-」, 의민 이두현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선청어문』, 서울대 국어교육과, 1989, p.82.

72) 현용준, 「삼성신화연구」, 『탐라문화』 2호, 탐라문화연구소, 1983, pp.83~84.

73) 서유원, 앞의 논문, 1995, pp.1~2.

방법이다.

신화 인물이 쟁투 모습은 신화 인물이 즉위하기 전, 후에 나타나는데, 이 모티프는 인물이 통과의례를 거치는 과정에서 백성과 후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혼인은 방에 갇히거나 부리가 떨어지거나 배를 타고 도래하는 등의 신이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유화·알영·허비는 水神·지신·생산신의 기능을 가진 지모신으로서 단군·동명왕·해모수·주몽·혁거세·수로왕 같은 천부신과 신성 혼인을 한다. 다만 삼성 시조는 땅에서 솟구친 지신으로서 세 渡來 여신과 각각 혼인을 한다. 이처럼 부권과 모권이 나타나는 것은 상고시대에 비록 모권이 약화되었으나 부권과 공존하면서 나라와 백성을 풍요롭게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역사적으로 모계에서 부계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신화에서 제의는 환웅의 천강 내림굿, 유화 부인 隧神·혁거세·수로왕 맞이굿, 웅녀가 굴속에서 지내는 통과 제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제천의식과 巫敎에 근원을 둔 다양한 제의 문화가 민족 단위로 전승되었음을 보여준다.

한국 신화는 단군·주몽·혁거세가 죽음을 맞이하여 승천하거나 산신이 되는 모티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수로왕 신화에서는 평범한 죽음 모티프가 나타난다. 이는 신화가 후대에 완성된 것일수록 죽음 모티프에서 제례를 중시하는 유교 문화적 경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산신이 된다는 화소는 무속에서 찾을 수 있고, 승천한다는 화소는 선도에서 볼 수 있으며, 평범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유교적 세계관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 신화 전승집단의 태도가 인물의 신성성을 다양성 속에서 그 원형대로 재확인하려 했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신화에는 신이한 감생 모티프가 많다. 황제처럼 번갯불에 감생한 것은 태양 숭배 사상이고, 은 설·진 대업 신화에서 알을 먹고 감생한 것은 神鳥⁷⁴⁾ 신앙이며, 후적 신화에서 上帝의 발자국에 감응 되어 탄생하는 神孕의 모습도 나타나고, 한 고조처럼 교룡에 의해 감생된 것은 천신

사상이 개입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로 보건대 중국 신화 전승집단은 태양·신조·천신 숭배사상과 동물 토템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 신화는 자연과 동물에 감응하여 탄생함으로써 신이성을 획득하고, 건국하거나 건국의 기반을 다지는 영웅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중국 신화에도 태생이나 난생을 유기·재수용하는 모티프가 나타난다. 신이한 탄생은 주인공의 예사롭지 않은 삶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유기되었을 때 신화 인물을 보호하는 동물은 전승집단의 최고신인 동물 토템일 것이다. ‘유기-보호-재수용’ 과정에서 통과의례를 거치도록 하여 인물의 위대성을 드러낸다. 쟁투 모티프 역시 시조의 활약상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제시된다.

중국 신화에 나타나는 혼인은 대체로 평범하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황제·하 우·진 대업·한 고조의 혼인이 그러하다. 은 설·주 후직 신화처럼 혼인 모티프 없이 후손에 대한 설명만 나타나는 것도 있다. 이는 당시 중국 사회에 이미 父權이 확립되어 모계가 종속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음을 의미한다.

중국 신화에서는 제의가 없고, 대체로 유교적 祭禮로 통일시키고 있다. 이는 유교가 국가 규범이 되었던 시기에, 그것이 신화 집필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구삼국사」나 「삼국유사」, 「세종실록」 지리지, 「논형」, 「박물지」의 필자는 판타지적인 내용을 모두 수용하였거나 비판적으로 수용하였으나, 「사기」의 저자 사마천이나 공자가 刪定한 「시경」은 고려 때 「삼국사기」의 편찬자 김부식처럼 유학적 관점에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판타지 내용은 거의 채택되지 않았다.

중국 신화에서는 신화 인물이 죽었을 때, 황제만 용을 타고 승천하는 모티프로 나타나고, 나머지 신화에서는 평범한 죽음에 제사를 지내거나 사당을 짓는 결말을 맺는다. 황제가 용을 타고 승천하는 것은 도교적인 것이고, 제례나 사당을 지어 망자를 위로하는 것은 유교적인 것이다. 이

74) 玄鳥라는 봉황을 의미한다.

런 죽음 모티프의 차이는 앞의 제의 모티프와 마찬가지로 상고시대에 형성되었던 제의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후대에 형성된 신화일수록 유교문화로 획일화되어 인물의 영웅적 모습을 부각시키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국 신화 전승집단이 다양성 속에서도 신화적 원형을 유교적으로 통일하려 했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4. 결 론

지금까지 한·중 건국 시조신화 13편을 선정, 분석·비교하였다. 이 활동을 통하여 건국 시조신화의 특징과 그 의미를 파악하였다.

한국 신화에 天降·感應·湧出 모티프가 나타나는 것은 전승 집단이 신화 인물의 신성성을 확보하고, 시조의 건국행위가 하늘이 보장해 주는 권위의 실현임을 인식하였다. 중국 신화에는 전승 집단이 자연물이나 동물 感生을 통하여 인물의 신이성을 획득하고, 시조의 건국이 영웅적이고도 위대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인식하였다.

한국 신화에는 난생이 많은데, 이것은 태양과 穀神의 신성성을 표현한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모계 혈통이 약화되었음을 상징한다. 중국 신화에는 태생이 많은데, 이는 감응을 통한 신이성을 과시하며, 합리적 사고방식을 표현한 것이다.

유기·쟁투 모티프가 나타나는 것은 양국 신화 모두 통과의를 거치면서 인물의 위대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혼인에 대해서는 양국 신화 전승 집단의 사유가 다르다. 상고시대 한국은 父系와 母系가 신성 혼인을 하는데, 역사적으로는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임으로서 신화가 중국보다 선대에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중국 신화는 혼인이 아주 평범한 내용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신화가 기술되던 때에 이미 父權이 확립되어 母系가 부계에 종속되었음을 말해준다.

祭儀 모티프는 한국 신화가 제천의식과 아울러 무교·仙道·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의문화를 표현하고 있다. 중국은 祭儀가 나타나지 않고 유교적 祭禮로 획일화 되고 있어 신화가 후대에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황제가 승천하는 도교적 상상은 창의적인 발상이다.

죽음 모티프는 한국 신화에서 신이 되거나 승천하는 내용이 많은데, 이는 신성성의 표현이자 始祖에 대한 역사의 신화화를 뜻한다. 중국 신화에서는 대체로 평범한 죽음을 기술하고 있어 유교적 영향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두 나라 신화의 공통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다양성과 창의성이다. 인물이 출현하는 방식과 인물이 탄생하는 방식이 다양하고 기발하다. 둘째, 성장 과정이다. 신화 인물의 위대성을 알리기 위하여 신이하게 태어나서 유기·보호되고, 다시 수용되어 훌륭하게 자라서 쟁투를 하고 혼인하여 뜻을 이루고 죽는다는 사건 전개는 비슷하다.

다른 점도 있다. 첫째, 한국 신화 인물은 천강·용출하는 신성한 인물인데 비하여, 중국 신화 인물은 자연물·동물에 감응 되어 탄생하는 신이한 인물이다. 둘째, 혼인하는 모티프가 한국 신화에서는 천부신과 지모신의 神聖 혼인으로 이루어지는데, 중국 신화에서는 평범한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신화 형성의 시기와 모계의 지위가 서로 달랐음을 의미한다. 셋째, 죽음을 나타내는 모티프가 샤머니즘과 신선사상과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다양하게 나타나나 중국은 도교사상도 보이거나 유교 중심적이다.

이런 차이는 양국의 신화 전승 집단이 문화적·사상적으로 다른 사유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화를 보는 관점에서 한국 신화는 천상과 지상을 배경으로 神聖한 神格의 건국행위를 서사물로 표현한 반면, 중국 신화는 주로 지상을 무대로 神異한 英雄의 건국·통치 행위를 서사물로 표현하였다. 신화 형성기의 사회 배경이 한국 신화는 母系에서 父系로 이동하는 과도기라면, 중국 신화는 父權이 이미 확립된 시기이다. 세계관은 한국 신화가 난생으로 천신 강림, 태양 숭배, 지신 사상이 강하

다면, 중국 신화에는 태생으로 감응, 천신 사상 중심이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건국 시조신화는 비슷한 모티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한국 신화 전승집단이 인물의 신성성을 다양성 속에서 그 원형대로 재확인하려는 태도를 지녔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국의 건국 시조신화는 다양하지만 같은 모티프가 생략되어 있다. 이것은 신화전승자가 다양성 속에서 신화적 원형을 유교적으로 통일시키려는 태도를 지녔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열규, 『韓國民俗과 文學研究』, 일조각, 1993.
 김태곤, 『韓國巫俗研究』, 집문당, 1995.
 김화경, 『한국 신화의 원류』, 지식산업사, 2005.
 나경수, 『韓國의 神話 研究』, 교문사, 1993.
 박정양, 『중국문학사』 1, 연변대학출판사, 1997.
 三品彰英, 『三品彰英全集』 3권, 平民社, 1971.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서정범, 『國語源辭典』, 한국어원학회연구총서 1, 도서출판 보고사, 2001.
 올란드 아코비 / 이태동 역, 『칼 융의 심리학』, 成文閣, 1978.
 윤내현, 『商王朝史의 研究』, 경인문화사, 1978.
 윤내현, 『商周史』, 민음사, 1990.
 이기백, 『韓國傳統文化論』, 일조각, 2002.
 李春植, 『中國史序說』, 교보문고, 1991.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一潮閣, 199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1996.
 최남선, 『增補 三國遺事』, 서문문화사, 1983.
 한우근, 『韓國通史』, 을유문화사, 1992.
 Eric W. Rothenbuhler, *Ritual Communication -From Everyday Comversation to Mediated Ceremony*, Sage Publications, 1988.

Joseph Campbell,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New York, 1968.

<논문>

- 나희라, 「신라의 건국 신화와 의례」, 『한국고대역사연구』 39권, 한국고대사학회, 2005, 61쪽.
- 박대복, 「建國神話의 天觀念과 巫觀念」, 『語文研究』 32권 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222쪽.
- 박현숙, 「백제 건국신화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39집, 한국고대사학회, 2005, 32쪽.
- 오세정, 「건국신화의 제의적 서사구조 연구」, 『한국고전연구』 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286~290쪽.
- 柳東植, 「神話와 儀禮에서 본 古代韓國人의 信仰形態」, 『한국종교학』 1, 1972, 22쪽.
- 윤성용, 「고구려 建國神話」, 『한국고대사연구』 39권, 한국고대사학회, 2005, 23쪽.
- 이복규, 「동명 신화와 주몽 신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성과 검토」, 『국제어문』 12·13집, 국제어문학연구회, 1991, 199~222쪽.
- 이복규, 「夫餘 建國 神話의 시대별 인식 양상」, 『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1995, 344~351쪽.
- 임재해, 「맥락적 해석에 의한 김알지 신화와 신라문화의 정체성 재인식」, 『비교민속학』 33집, 비교민속학회, 2007, 594쪽.
- 서유원, 「中國 始祖神話의 특징과 玄鳥神話의 고찰」, 『中國語文論譯叢刊』 13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04, 39쪽.
- 서유원, 「中國 古代 주요 始祖說話 중 棄子神話에 보이는 遺棄 모티브의 연구」, 『중어중문학』 17집, 한국중어중문학회, 1995, 5쪽.
- 서유원, 「中國 주요 始祖神話에 보이는 感生神話 연구」, 『중국어문논역총간』 17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06, 11~17쪽.
- 장주근, 「구전신화와 문헌화 과정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삼성신화를 중심으로-」, 의민 이두현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선청어문』, 서울대 국어교육과, 1989, 82쪽.
- 정진희, 「朝鮮初 濟州 <三姓神話>의 문자화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30집, 한국고전문학회, 2006, 255~257쪽.
- 조태영, 「한국 난생 신화와 한국문학의 원형」, 『한신인문학연구』 2권, 2001, 6쪽.
- 현용준, 「삼성신화연구」, 『탐라문화』 2호, 탐라문화연구원, 1983, 83~84쪽.

▣ 박기용

- ☎ 소 속 : 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 주 소 : [660-756]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380번지
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 ☎ 전화번호 : 055-740-1213(연구실), 011-9507-2918(손전화)
- ☎ 누리편지 : nare@cue.ac.kr

- ◎ 논문접수 : 2008년 7월 13일
- ◎ 논문심사 : 2008년 7월 15일 ~8월 26일
- ◎ 게재결정 : 2008년 8월 26일